

카캐리어 횡단보도 덮쳐 공공근로 노인들 '참변'

여수 도심 내리막길서 속도 못줄여
행인·차량 10여대 충돌 12명 사상
오전 8시 썰레기 쭉고 오던 노인들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다 변 당해



20일 오전 8시56분께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승용차 탁승 차량과 승용차 여리다가 충돌해 차량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이 숨지는 등 모두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수소방 제공>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들이 갑자기 덮친 화물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 도심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카 캐리어(차량을 배송하는 화물차)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정차중인 차량들을 덮쳐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20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여수시 광무동 한재사거리에서 카 캐리어차량이 횡단보도를 넘어 승용차 10여 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6명을 덮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A(80)씨와 B(72)씨, C(73)씨 등 3명이 숨졌다. 나머지 보행자 3명과 정차 차량운전자 6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6명의 행인 중 A씨와 C씨를 포함한 4명이 여수시 서강동 노인 일자리 사업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들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여수시 서강동 일대에서 잡초를 뽑거나 썰레기를 쭉는 미화 활동을 해왔다. 이 노인들은 상황에 따라 출근시간은 변동이 있지만, 한달에 10일(1일 3시간)을 일하고 월 27만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여수 전남병원 맞은편에서 썰레기를 쭉고 횡단보도를 건너 서강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

횡단보도를 덮친 화물차량은 차량을 배송하는 카 캐리어 차량으로 3대의 소형차와 2대의 SUV를 싣고 한재터널에서 여수 도심 방향으로 운행중이었다. 편도 2차 선종 2차로로 내려오던 카 캐리어는 한재교차로 바로 전에 우회전 차선이 생기는 3차로

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 차선에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 때문에 3대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지만, 카 캐리어는 내리막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차례 크게 휘청하더니 앞에 정차된 차량을 모두 들이박고 횡단보도까지 덮친 후 건너편에 있던 차량까지 잇달아 추돌한 뒤 겨우 멈춰 섰다. 충돌 과정에서 카 캐리어에 적재된 SUV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로 떨어지기도 했다.

카 캐리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조작했지만 속도 가 줄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 캐리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진술을 토대로 차량 브레이크가 파열돼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긴급 상황대처반을 가동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빈소 마련과 보험 등 희생자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해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자 안내 및 지원 등을 충실하게 이행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호남대 LINC+,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선정

호남대학교 LINC+사업단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산업 중심의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산단을 이끌어 나갈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내 AI에 기반한 스마트제조혁신의 전초 기지로 탈바꿈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인 호남대는 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조

선대와 참여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비 약 80억원(18개월)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현장수요 기반 맞춤형-대학별 특화형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스마트제조혁신 인력양성 교육센터 운영 ▲스마트제조 인프라 확충 ▲현장기술 컨설팅 수행 ▲산학협력 프로젝트기반 교육과정 운영 ▲고용-취업 연계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호남대는 스마트제조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제조 맞춤형교육, 기술지도, 온라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제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재직자 양성, 숙련된 인력 공급과 재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스마트제조 기술분야 교육을 통한 고급 일자리 취업 연계 추진 등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 고독사 예방 '안심동행 앱' 실시

일정기간 휴대폰 사용 없을 때 지인 등에 문자 전송

광주 남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옴뿔호 남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남구는 20일 "1인 가구를 비롯해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일정기간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긴급 구호자로 등록된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토록 하는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안심동행 앱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군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시 도움이 필요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 등을 위한 것으로, 해당 앱만 다운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앱 설치 및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윈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옴뿔호 남구 안심동행'을 검색해 다운받은 뒤 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 등을 긴급 구호자로 등록하면 된다. 또 안심동행 앱 사용자가 휴대전화 미사용 기간도 지정할 수 있다.

남구는 안심동행 앱 서비스 실시로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위험 가능성을 낮추고, 많은 예산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당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